

송영길 민주 대표 첫 시험대...당·청 관계 주도권 잡을까

인사청문장 난제 풀기 직면

당·정·청 협의, 해법 도출 주목

취임 이후 부동산 등 민생 챙기기

당직 비주류 인사 '친문색 빼기'

호남민심 정권 재창출 주도 기대

호남 민심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주목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쇄신론'의 깃발을 들고 당권을 장악한 송 대표에게 '인사청문장 해법 도출'이라는 난제가 부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풀어 내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을 진두지휘할 송 대표의 리더십이 상치를 받을 수 밖에 없고 결국 정권재창출의 길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5개 부처 장관 가운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야

권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특히, 3인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민심의 눈길도 그리 좋지 않다는 점은 여권이 큰 부담이다.

당·정·청은 9일 저녁 국무총리 공관에서 현안 협의를 진행한다. 민주당에선 송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윤관석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선 민생경제, 백신 수급 문제 등도 논의될 예정이지만 당장 '발등의 불'인 인사청문장 해법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10일까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청문보고서 단독 처리와 지명 철회 여부는 이날 저녁 최종 결정이 나와 한다. 10일에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침을 밝히는 특별연설과 함께 기자 회견도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당·정·청 협의에서 송 대표가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 낼 것인지가 주목된다. 그동안 송 대표가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지적하며 당·정 관계에서 당의 주도권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송 대표가 원만한 인사청문장 해법을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그의 리더십은 상치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정치권에선 민심의 눈높이 등을 고려, 임·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가족 동반 해외출장(임 후보자)이나 부인의 도자기 밀수(박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다만 여당 내에서는 관사를 이용한 시제

의 실현 의혹을 받고 있는 노형욱 후보는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 차기 국토부 장관은 정권 말 부동산 대책을 진두지휘하는 만큼 가볍게 낙마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내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다른 정국 현안까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이날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송 대표 측에서 인사청문회 참여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낙마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주된 반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국민 공분이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임명 강행을 밀어 부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4·7 재보선 패배 이후, 첫 장관 인선이 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한 발 물러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해왔던 송 대표가 최소한 임·박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은 정리하는 선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송 대표가 이 정도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그가 내세웠던 쇄신론이 바래면서 리더십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송 대표가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각종 현안에 대해 물러서지 않는 강단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결론을 만들어 내지 않느냐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청의 원활한 소통은 차기 대선 승리의 전제 조건"이라며 "결국 청와대에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한편, 송 대표가 취임 1주일 동안 당 요직에 비주류 인사들을 대거 발탁하는 한편, 검찰·언론개혁 등에 치중하기보다는 부동산·반도체 등 경제 현안을 챙기면서 '친문(친문재인) 색 빼기'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 7일 정책위의장에 3선의 박완주 의원을 임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원내 지도부 경선에서 친문 핵심인 윤호중 원내대표와 경쟁을 벌인 인물이다.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함께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당내에서는 송 대표가 윤 원내대표에게 사실상 견제구를 날린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여기에 전략기획위원장은 광주시장위원장이었던 재선의 송갑석 의원(서구갑)을 임명했다. 그동안 전략기획위원장은 진성준·정태호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주로 맡아왔다. 송 의원은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핵심 친문 그룹과는 일정 정도의 거리가 있다. 앞서 지명한 윤관석 사무총장, 김영호 비서실장, 이용빈 대변인 등도 여당 내에선 비주류로 분류된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지난 1주일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관련 메시지는 일절 내지 않았다. 대선 부동산, 코로나19 백신, 반도체 등 경제 및 민생 현안에 집중했다. 지난 6일에는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차량용 반도체 수급 현황과 업계 애로사항을 들었다. 송 대표는 또 지난 7일에는 광주·전남을 방문해 군 공항 이전과 한전 공대의 차질없는 개교 등 지역 현안을 챙겼다. 호남 민심의 굳건한 지지를 바탕으로 정권재창출에 나서겠다는 뜻이 담긴 행보로 읽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송 대표가 인사청문회 면을 무난하게 넘기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쇄신론을 바탕으로 중도 확장에 나선다면 대선 정국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형성할 것"이라며 "호남 민심도 송 대표가 여러 난제들을 헤치고 정권재창출을 이뤄내 여권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7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당 지도부 선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7일 오전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 내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을 찾아 박광태 대표이사 등 임직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재보선 참패 실망한 텃밭 달래기 국민의힘 '도로 영남당 탈피' 외연 넓히기

양당 지도부 동시 광주 방문

민생현장 찾아 호남민심 잡기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호남행을 택한 것은 대선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는 호남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특히 여야는 호남에서의 분위기가 쇄신론이 내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역현안 해결을 앞세워 호남 민심을 향한 경쟁적인 구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의 쇄신과 발전적 변화를 다짐하며 4·7 재보선 참패 이후 실망한 호남 민심 달래기를 통해 텃밭 사수에 주력하고, 국민의힘은 '도로 영남당'을 탈피하기 위해 호남을 포함한 지역적 외연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대선 과정에서 여야의 호남 민심 잡기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7일 동시에 광주를 방문한 양 당 지도부는 서로 '견제구'를 날리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광주에서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환영드린다"면서 "5·18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법도 여야가 같이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해수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에 "격세지감"이라면서 "진정성이 있으면 현범에 5·18 정신을 반영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데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며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나주의 한전공대 설립 부지를 방문했다. 송 대표는 "나주혁신도시가 제대로 되려면 국제 학교가 필요하다"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일렬로

연결하고 졸업한 사람들이 혁신형 창업까지 하면 최고의 혁신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원내 지도부 구성과 함께 이날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해 사죄하고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가졌다. 5·18과 관련해 국민의힘 계열 정당 대표급의 사과와 지난해 김정은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무릎 사과' 이후 두 번째다. 김 대표 대행은 광주 방문 배경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관심을 쏟고 노력을 배가해야 할 분야"라며 "지역, 계층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를 키우기 위한 첫 행보가 광주"라고 말했다.

김 대표 대행 등 당 지도부는 이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을 방문해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일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이나 예산 배려에도 항상 우선 순위에 뒤야 할 지역"이라면서 "호남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에는 무안에 34년 만에 동지를 튼 전남도당 당사 개소식에 참석해 호남 민심 공략에 박차를 가했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친(親)호남을 떠나서 핵(核)호남이 돼야 한다"면서 "호남이 우리의 (중심) 핵이 돼야 한다는 의지로 끝고 나가야 진정한 있게 열매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남 지역 비례대표를 당선 안정권에 25%를 배치하도록 한 당헌·당규를 개정할 거론하며 "단순히 비례대표 인몰 배치 문제만이 아니라, 호남의 소중한 인재들을 우리 당 중심에 배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여순사건 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지역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과거사를 어떻게 청산·정리할 것인가의 문제"라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MUSICAL

광주

우리의 사랑·명예·이름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2021. 05. 15. (SAT) - 2021. 05. 16. (SUN)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

민우회 신우 민영기 김중구 정은아 이소소리 최지혜 박시원 이흥준 안영홍 임진아 김태문 문성일 문병권 외